

朱子書節要序*

晦菴 朱夫子는 亞聖의 자질로 태어나 河洛¹⁾의 계통을 이었는데 도는 우뚝하고 덕은 높으며, 사업은 넓어서 공로가 높다. 또 그가 經傳의 뜻을 발휘하여 천하 후세를 가르친 것은 모두 귀신에게 물어도 의심이 없고 백세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됨이 없을 것이다. 부자께서 별세한 뒤에 두 王氏와 余氏²⁾가 부자께서 평소에 저술한 시문들을 모아 한 책을 만들고 朱子大全이라고 이름붙이니 총 약간 권이 되었다. 그 중에 공경 대부와 문인 및 아는 친구들과 왕복한 서찰이 자그마치 48권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것이 아주 없거나 겨우 조금 있었을 뿐이므로 얻어본 선비는 적었다.

嘉靖 계묘년에 우리 中宗大王께서 교서관에 명하여 인쇄해서 반포하게 하였다. 이에 신 滉은 비로소 이런 책이 있는 줄을 알고 구하여 얻었으나 아직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책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잇따라 병 때문에 관직을 버리고 溪上으로 돌아와 날마다 문을 닫고 조용히 거처하며 읽어보았다. 이로부터 점점 그 말에 맛이 있음과 그 뜻이 무궁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서찰에 있어서는 더욱 느끼는 바가 있었다. 대체로 그 책 전체를 두고 논한다면 지구가 넓고 바다가 깊은 것과 같이 없는 것이 없으나, 구해 보아도 그 요점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서찰에 있어서는 각기 사람들의 材稟의 고하와 학문의 얇고 깊음에 따라 증세를 살펴 약을 쓰며 사물에 따라 저울로 다는 듯이 알맞게 하였다. 혹은 역대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1) 河洛 : 河水와 洛水라는 지명으로 夏·殷·周 3대가 도읍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禹·湯·文王을 가리킨다.

2) 두 王氏와 余氏 : 두 왕씨는 王潛齋와 王實齋를 말하며, 여씨는 余師魯를 말한다.

시키거나 양양시키며 혹은 인도하거나 구원하며 또는 격려하여 진취시키기도 하고 배척하여 경계시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심술의 은미한 사이에 작은 뽀이라도 용납될 수 없게 하였고, 의리를 캐내고 찾을 때에는 조그만한 차이점도 먼저 비취 주었다. 또한 규모가 광대하고 심법이 엄밀하며, 깊은 물가에 있듯 얇은 얼음을 밟듯 조심하여 혹시라도 쉬는 때가 없게 하였다. 악을 징계하여 막고 허물 고치기를 미치지 못하는 듯이 두려워하며, 강건하고 독실하여 그 빛이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고 힘쓰고 따르면서 그치지 않는 것은 남과 자신이 간격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가 남에게 고해 주면 능히 남으로 하여금 감동되어 흥기토록 하였다.

당시 문하에 있던 선비들만 그랬을 뿐 아니라 비록 백 세의 먼 훗일이라도 그 가르침을 듣는 자는, 귀에 대고 말하며 직접 대해 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아! 지극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책의 규모가 광대하여 다 살펴보기가 쉽지 않고 등재된 제자들의 문답에도 혹 득실이 있음을 먼치 못하였다. 이에 나 황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중에서 더욱 학문에 관계되고 쓰임에 절실한 것을 찾아 표시하였는데 篇이나 章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요점을 얻기에 힘썼다. 마침내 여러 번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자와 자질들에게 부탁하여 책을 나누어 필사하게 하였다. 이를 마치니 모두 14권 7책이 되었는데 본래의 책에 비교하여 감해진 것이 거의 3분의 2나 되었으니 외람되고 망녕된 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宋學士集을 보니 그 기록에 “魯齋³⁾王先生이 그가 뽑은 주자의 글을 가지고 北山 河先生⁴⁾에게 교정을 구하였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벌써 이 일을 했던 것이며, 그 뽑고 교정한 것이 정밀하여 전해질 만하였을 것인데도 당시의 宋公도 얻어볼 수 없음을 오

3) 魯齋 : 宋나라 王栢의 호, 자는 會之이며 저서에 讀易記 등 다수가 있다. 宋史 438권.

4) 北山 河先生 : 宋나라 何基의 호, 자는 子恭이며 伊洛의 근원을 연구하였고, 金華山에 살았으므로 사람들이 북산선생이라고 일컬었다. 宋史 438권.

히려 한탄하였다. 더구나 지금 이 나라에서 수백 년 뒤에 태어났는데도 어찌 그것을 구해 보고 좀더 간략하게 해서 공부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자가 말하기를 “聖經과 賢傳은 어느 것인들 실학이 아니겠는가? 또한 지금 여러 集註의 학설로서 집집마다 전하고 사람마다 읽는 것이 모두 지극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대 홀로 부자의 서찰에만 알뜰하니 어찌 그 숭상하는 바가 한 쪽에 치우치고 넓지 못한가?” 하였다. 나는 대답하였다. 자네가 말이 그럴 듯하나 그렇지 않다. 대체로 사람이 학문을 함에는 단서를 발견하고 흥기되는 곳이 있어야만 이로 인해 진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천하의 英才가 적지 않으며, 성현의 글을 읽고 부자의 학설을 외우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런 학문에 힘쓰는 자가 없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단서를 발견하여 그 마음을 진작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서찰에 있는 말은 그 당시의 師友들 사이에 좋은 비결을 강론하여 밝히고 공부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저들과 같이 범연하게 논한 것과느는 다르고 어느 것이나 사람의 뜻을 발견하고 사람의 마음을 진작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옛날 성인의 가르침에 禮·樂·詩·書가 모두 있다. 그런데 程子와 朱子는 이를 칭송하고 기술함에 있어 마침내 論語를 가장 학문에 절실한 것으로 삼았으니 그 뜻은 역시 이 때문이었다. 아! 논어 한 가지의 한 책으로도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 학설을 외우기에 힘쓸 뿐 도구하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니 이것은 꺾임에 빠진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에는 논어의 뜻은 있지만 꺾임에 빠지는 해독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배우는 자로 하여금 느끼고 흥기되게 하여, 참으로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는 이 글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의 말씀에 이르기를 “학자가 진보되지 못하는 것은 들어갈 곳이 없어 그 맛을 즐길 만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들어갈 곳이 없다는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뜻을 겸손하게 하며 번거로움을 참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

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뜻을 겸손하게 하며 번거로움을 건디고 깨닫게 하기를, 부자의 가르침처럼 한다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들어갈 곳을 얻게 된 뒤이면 그 맛의 즐길 만한 것임을 아는 것이 맛나는 음식이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닐 것이다. 또 이른바 규모를 크게 하고 심법을 엄하게 하는 것에도 거의 힘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널리 통하여 곧바로 올라간다면 伊洛⁵⁾에 소급되고 洙泗⁶⁾에 달하게 되어 어디로 가나 불가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성경과 현전이 사실은 모두 우리의 학문인 것이다. 어찌 이 한 책만을 치우치게 숭상한다 할 수 있겠는가? 황은 나이 늙었고 병들어 궁벽한 산 중에 있으면서 전에 배우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성인의 여운을 깨닫기 어려움을 개탄하였다. 그런데 구구하게 단서를 발견하였던 것은 실로 이 글에 힘입었음이 있었다. 그래서 감히 남이 지목하는데도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즐거이 동지들에게 고하며 또한 무궁한 후세에 공론을 기다린다.

嘉靖 무오년 4월에 후학 진성 이황 삼가 씀.

5) 伊洛 : 두 程자가 伊水와 落水 사이에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6) 洙泗 : 山東省에 있는 洙水와 泗水, 공자께서 이곳에서 도를 강론하였다.